

글 한 편마다 약동하는 '대한 사람'의 시대정신

근대의 피 끓는 명문

서재필 외 지음·안대희 외 편역

우리 역사에서 1866년은 이후 우리 근대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을 촉발시켰던 의미 있는 해다.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입한 이른바 신미양요는 강화도 조약은 물론 입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 농민 혁명 등으로 이어졌다.

1897년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등장했지만 얼마 후 을사늑약을 매개로 국권을 상실한다. 이 즈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시일야방성대곡에서 독립선언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20세기를 엿볼 수 있는 글이 책으로 묶여졌다. 조선이 문명개화로 나아가기를 염원했던 문장은 한마디로 '대한 사람'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발간사', 유길준의 '이루지 못한 김옥균의 꿈',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등 39편을 모은 '근대의 피 끓는 명문'이 바로 그것. 안대희 성균관대학교 수,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등 6명이 편역을 맡았다. 지난 2017년 전 9권이 완간됐으며 이번 출간되는 책은 특별판으로 국문학, 한문학계의 연구 성과에 힘입었다.

엄정하게 선별하고 유려하게 번역한 이번 책은 조선 초 서거정의 '동문선' 이후 최대 규모 산문 선집이라 할 수 있다. 서거정이 조선의 문운(文運)을 보이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책은 오늘을 사는 독자들을 상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편역을 맡은 학자들은 "3·1 운동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 국가 대한민국의 정문을 열어젖힌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를 기리는 동시에 남아 있던 아쉬움을 달래고자 백여 년 전 후의 명문을 골라 현대의 문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대한 제국기 격랑의 근세사를 몸으로 겪은 대한 사람의 피 끓는 명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며 "대한 사람"의 시대정신이 글 한 편 한 편마다 약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국산문선'의 별권을 낸다"고 덧붙였다.

당시의 명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음습체'가 처음 '독립신문'에 등장한다. 서재필이 발간사를 쓸 때 가장 큰 고민은 문장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였다. 오늘날에는 명사형 종결형이 '다'로 통일됐지만 전해오는 한문과 국한문 혼용체까지 걸쳐 '-하어, -건대, -이



1905년 11월 20일 자 황성신문에 실은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을사조약의 '매국'의 적이라 쓴 글에서 죽비와도 같은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라' 등 옛투가 주를 이루었다.

서재필은 고심 끝에 명사형 종결형을 택했다. "이 신문은 오직 조선만 위한다는 것을 알 것ियो, 이 신문을 통해 내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것임."이라는 '음습체'가 눈에 띈다.

당시 글에는 요즘의 '헬조선'과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오늘날의 '헬조선'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하연은 '시급한 여자 교육'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참상을 따져 보면 그 원인은 여자를 교육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판했다. 안경수는 '독립협회서에서' "쓸데없는 걸치레가 너무 많고 쓸

어 있는 폐단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1905년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은 오늘 읽어도 감동이 만만치 않다. 죽비와도 같은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다.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것들은 영달과 이익을 비라고 공갈을 받자한 위협에 겁먹어 우물쭈물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여 사천 년 강토와 오백 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받들어 버치고 이천만 백성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두들겨 만들었다." <민음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리·베를린·뉴욕 ... 7개 도시 문방구 탐방기

나의 문구 여행기

문경연 지음

'아무튼, 문구'를 쓴 김규림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문구인'을 발견하고 아주 흡족해한다. 각종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문구인'이라는 이름이 나 역시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마다 낯선 도시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을 듯하다. 미술관, 박물관 같은 규모가 큰 공간뿐 아니라 이름 있는 카페를 방문해 인증 사진을 찍고 오래된 가게를 탐방하는 이들도 있다. '문구인'들은 당연히 문방구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좀처럼 헤어지지 못한다.

'나의 문구 여행기'를 쓴 저자 문경연



지금은 '문방구 주인'이 됐다.

책은 제목처럼 세계 7개 도시 27개 문방구를 찾아 떠난 문구 여행기이면서, 여행을 통해 자신을 만난 기록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저자는 여느 20대처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산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게 된 그녀는 67일간 떠난 여행의 목적을 생각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문구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하며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에 유용한 문구 마스크 테이프, 클립과 집게, 스프링 노트 등을 챙겨 넣은 그녀의 첫 여행지는 '예술이 쏟아지는 도시' 파리. '문구 덕후'들의 사랑을 받는 '종이 호랑이'라는 뜻의 디자인 스튜디오 '파피에 티그르'에서 노트와 엽서를 만나고 루브르 박물관 지하 쇼펍센터의 문방구 '텐포닉스'로 발걸음이 이어진다.

또 '기록광을 위한 도시' 베를린과 강렬한 원색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바르셀로나, 연필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펜을 엔터프라이즈'를 방문한 뉴욕, 상하이, 도쿄의 다양한 문방구도 만날 수 있다.

그녀가 묘사하는 문구는 근사하다. "제 몸보다 큰 무엇인가를 붙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스티커, 몸을 꺾어나는 실수를 지워줄 지우개, 나의 손이 닿기 전까지 책임지고 맡은 것을 보관해 줄 집게와 클립, 말로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줄 편지지와 엽서"처럼 말이다.

저자는 또 추억이 어린 스티커와 학종이 등 먼지 쌓인 문구를 손에 넣을 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우리 동네' 문방구 탐방도 권한다. 그녀가 전해주는 '문구여행의 기술'을 따라 직접 두발로 다녀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녀가 꼭 적어온 문구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문구인은 행복하다. 책 뒤쪽에는 방문한 세계 각국 문구점의 홈페이지도 함께 실었다.

문구여행을 마친 후, 4개월 뒤 창업한 그녀는 직접 디자인 한 문구를 판매하는 문구 브랜드 '아날로그 키퍼'를 운영하고 있다.

<뜨인돌·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어느 정신과 의사의 명상 일기 = 수차례 명상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정신과 의사가 일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5분간 명상을 한 후 쓴 일기를 모았다. 저자는 일 년간 꾸준한 명상을 한 결과,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젠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알아차리는 힘이 커졌음을 고백한다. 명상을 통해 어수선한 일상과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자 한 분투를 기록했다.

<열린세상·1만7000원>

▲나의 비거니즘 만화 = 비건이 직접 쓰고 그린 비거니즘에 대한 만화다. 주인공 '아멜리'는 비건인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비건이 되었다. 비거니즘이라는 가치관을 소개하기 위해 이 만화는 나와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법, 동물을 몰개성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는 태도, 육식의 불편한 진실, 비인도적인 동물 착취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비건으로서의 일상과 다양한 비건식에 대해서도 그린다.

<푸른숲·1만6500원>

▲비철학자들을 위한 철학 입문 = 유고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알튀세르가生前에 쓴 철학 교과서다. 철학이 난해하거나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들을 위한 책으로, 저자는 비철학의 사례로 특히 마키아벨리,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든다. 이를 통해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철학을 왜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다시 사유하게 한다.

<현실문화연구·2만2000원>

▲세계대전과 유럽통합 구상 = 이 책은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에서 제안되거나 구상되었던 유럽 통합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통합과 분열이라는 모순적 가치들의 병행과 양립을 목격할 수 있는 30년 동안의 양자 세계대전 시기를 유럽 통합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다양한 유럽 통합 구상 혹은 유럽 질서들을 규명한다.

<책과함께·2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도 사자야 = 레나드는 부드럽고 순한 사자다. 포근한 햇볕을 느끼며 느릿느릿 걷는 것과 시 짓기를 좋아한다. 어느 날 레나드는 감성이 풍부한 오리 매리언을 만나 단짝 친구가 된다. 하지만 레나드의 사자 친구들은 레나드에게 오리를 잡아먹고 다그치고, 사자란 사냥고 거칠어야 한다고 압박지른다. 레나드와 매리언은 한 편의 시를 통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전한다.

<주니어RHK·1만2000원>

▲몽땅 잡아도 돼? = 책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각종 곤충 등 생태계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 할아버지를 따라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가 곤충의 매력에 푹 빠진 주인공 조지는 곤충 채집을 하던 어느날 들뜬 데 곤충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조지는 생태계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자그마한 곤충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기이한 DMZ 생태공원 = 이 책은 1953년 정전협정 후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에 작가지적 상상력을 보태 만든 그림책이다. 미술작업을 위해 DMZ 근방을 자주 방문하던 저자는 미술 상상을 펼쳐 '기이한 DMZ 생태공원'의 동식물 친구들을 그려낸다. 이 책은 전쟁의 폐해를 미술로 알리는 동시에, 예술적 '상상의 힘'을 보여준다. <소동·1만5000원>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